제주 월동채소 예상 재배면적 작목별 온도차

지난해 가격 상승한 브로콜리 선호도 높아져 증가 전망
양배추·당근·양파는 가격 하락·기상 피해 등으로 감소

제주지역 월동채소 중 브로콜리 재배면적이 올해와 내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배추와 당근, 양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작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2026~2027년산 주요 월동채소 종자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작목별 재배면적은 2025~2026년과 비교해 브로콜리가 1010ha에서 1540ha로, 월동무는 5585ha에서 5710ha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당근은 1850ha에서 1640ha로, 양배추는 2039ha에서 1340ha로, 양파는 704ha에서 600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종자회사 12곳과 도매업체 8곳 등 모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양파 등 5개 작목이다. 조사 결과 종자 유통량은 지난해보다 브로콜리 32.4%, 월동무 2.2% 증가했다. 반면 양배추는 19.4%, 양파는 15.5%, 당근은 6.8% 감소했다.

농업기술원은 종자 유통량을 바탕으로 파종·정식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목별 재배면적을 추정했다.

브로콜리는 조사 대상 작목 가운데 재배면적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양배추는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출하가격에 따른 작목별 수익성 차이가 농가의 재배작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 상승으로 재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작업 여건에 따라 실제 재배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

월동무는 토양생태보전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작목에서 월동무로 전환한 농가가 늘면서 전체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양배추와 양파는 지난해 출하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당근은 파종기 가뭄과 바닷바람에 의한 조풍 피해로 재파종하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사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감소율은 16.8%로, 종자 유통량 감소율인 6.8%보다 10.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에 따른 농가의 작목 선택 변화뿐 아니라 파종 이후 발생한 가뭄과 조풍 등 기상 피해도 실제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지난해 가격뿐 아니라 기상 여건과 농가의 작목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종자 유통량과 드론 조사, 현장 관측자료를 연계해 재배면적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수급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중단을 촉구했다. 이태윤기자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기자회견 열고 공정성 문제 제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찬성 측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추천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추첨이라는 절차만으로 공정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쪽의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어떻게 도민 전체의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또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사업의 법적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견수렴을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반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도지사는 과거 제2공항 찬성 입장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윤기자

전국 로컬기업 제주로… '로컬창업 페스타' 개막

140여곳 참여… 4~6일 제주시 원도심서 성장 전략 공유
국내외 투자사·바이어 동참 투자·판로·수출 기회 모색

로컬기업의 창업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가 4일 개막, 6일까지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로컬기업 약 140개를 비롯해 국내 투자사 8개사, 해외 투자사 3개사, 대형 브랜드·유통사 5개사, 해외 바이어 13개사, 해외 진출 지원기관 1개 기관 등이 참여해 투자·판로·수출 기회를 함께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로컬에서 세계로, 지역의 가치를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지역의 자원과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로컬기업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민간투자 유치와 새로운 판로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성장 경로를 한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컬기업 창업·육성, 민간투자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글로벌 진출 등의 성과와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로컬기업의 다음 성장 기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매출·수출 등 실질적인 성장 성과를 창출한 로컬기업들의 성과도 한자리에서 공유한다.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행사 첫날에는 '지역에서 브랜드로'를 주제로, 로컬기업의 브랜드 성장 과정과 민간투자 연계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립스(LIPS, 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SME)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로컬스타 TOP3'를 공개해 전국 우수 로컬기업의 성장 성과를 알린다. 둘째 날에는 '로컬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을 주제로 '로컬상권 수다회'와 성과공유회가 열리고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 지역의 실제 상권을 둘러보는 '상권 인사이트 트립'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세계로 나아가는 로컬기업'을 주제로 '로컬을 잇다'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유통사와 로컬기업 간 협업 사례 및 향후 연계 방향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지원기관 및 해외 바이어와 1:1 상담도 지원한다.

행사 프로그램과 참여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의 공식 홈페이지(festa.jejucre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히트펌프 보급 추가 모집… "태양광 없어도 가능"

1000가구 안팎 선착순
주택당 최대 2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11월부터 히트펌프 보급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가운데 필수 조건이었던 태양광 설비 없이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가구만 히트펌프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추가 모집부터는 태양광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단독주택 소유자와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당 1대만 지원하던 기준도 변경돼 난방면적이 기준을 넘거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주택당 최대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취소 가구에 대비한 예비가구를 포함해 1000가구 안팎이며, 모집 물량이 찰 때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하반기 보급계획과 동일하게 1대당 최대 단가 1400만원을 기준으로 국·도비 70%(최대 980만원)를 지원하며, 신청 가구는 30%(4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는 겨울철 난방 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장 확인에서 승인을 받아 신청서류를 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자(컨소시엄)별로 배정된 물량 안에서 접수 순서대로 선정해 보급한다.

주택 상황과 전기 공급 절차에 따라 설치에 7일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가구에서는 설치 기간에 난방과 온수 사용이 중단돼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본격화

기본계획 승인… 90억원 투입 내년 완료

제주시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 90억7200만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추진된다.

앞서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화북항 앵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앵커조직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반영과 사회혁신 실험의 기획·운영을 맡고 있다.

기반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스테이션 신축, 안성창 정비,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등이다. 백금탁기자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각종감귤묘목 판매
감귤 포트묘 전문 · 무병묘 생산 지정업체
2027년 봄 묘목 분양 예약 접수
민성종묘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묘목을 직접 생산·관리합니다.
분양 품종
조생감귤 · 궁천조생 · 하례조생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
만감류 ·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카라향 · 미래향 · 사라향
제주도내 품종 · 우리향 · 달코미 · 맛나봉 · 레드스타
그 외 품종 · 레몬 · 제라몬 · 미니몬 · 하귤 · 당유자 · 금귤 · 문단 · 레드허니포멜로 · 감귤 결실화분묘
검사로 확인한 감귤무병묘
검사기관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를 통과한 묘목
무병묘 구입비 지원 안내 (신청서류 작성 지원)
1주당 1,500원
감귤무병묘 품종
하례조생 · 천혜향 · 사라향 · 레드향 · 제라몬
포트묘의 장점
높은 활착률로 초기 생육에 유리
뿌리 손상이 적어 식재 스트레스 감소
심는 시기 조절이 비교적 편리
운반과 관리가 편리
품종 갱신 · 신규 과원 조성 · 품종별 구입 · 재배·묘목 선택
예약·상담 문의 민성종묘 010-3694-5423
전국 배송 가능 · 상담 문의 환영
품종 · 수량에 따라 출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 전 상담해 주세요.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